

일정 및
목차



일 정	내 용	페이지
09:30-11:30	1. 가톨릭 사랑의 실천 영성인 ‘보는 마음’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중심으로 박문수 부원장(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 05
11:30-12:00	2.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에 대한 실무적용 논의	• 31
13:00-13:30	3. 실무적용 발표	• 37
13:30-17:30	4. 중간관리자 의사소통 기술의 실제 장신희 관장(동작종합사회복지관)	• 43
17:30-18:00	5. 파견미사	• 75

안내사항

중간관리자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점심식사

본 교육의 점심식사는 조별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식당이나 메뉴가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어 **조별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가. 모든 **조원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나.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거리의 제약**은 없습니다.
- 다. 주어진 비용 내에서 **지출은 자유**입니다.(단, 식품류에 한함.)
- 라.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개인소득공제 ×, 포인트 적립 ×,
간이영수증 ×, 영수증은 본 법인에서 드린 금액을 초과하면 안됨)
- ☆ 맛있는 점심 드세요!!

2. 개인컵 사용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오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서는 별도로 컵을 드리지 않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

명동개발관계로 본 회관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연

본 건물은 금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본 회관 지하1층**으로 가셔서 흡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01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인
“보는 마음”

-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중심으로

- 박문수 부원장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1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인 “보는 마음”

-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중심으로

박문수 부원장(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1. 머리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이하 DCE)』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31항 나)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보는 마음”을 마음의 양성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를 가톨릭 사회복지 기구에서 일하는 이들을 다른 이들과 구별할 수 있는 우선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다.¹⁾ ‘보는 마음’은 사랑의 수직적 차원(역사 인식)과 수평적 차원(타자의 인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일시적 감정에 가까운 ‘느끼는 마음’과 구별된다. 여기서 사랑의 수직적 차원이란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17항),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역사의 기원’을 아는 것이다. 수평적 차원은 이 수직적 차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자(the other)를 볼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내 눈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18항)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하는 사랑 실천의 영성이다. 본고에서는 이 사랑 실천의 영성인 ‘보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이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황 베네딕

1) Maria Luisa Di Pietro, “Charity and the Formation of Heart”, *The Way of Love : The Reflections on Pope Benedict XVI's The First Encyclical Deus Caritas Est*(출역, 『사랑의 길』, 사람과 사랑, 2009), 307-308쪽.

토 16세가 당신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회칙은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는 물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현장’이다. 이에 이 가르침을 숙독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현 교황의 생각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 가톨릭 사랑실천의 영성“보는 마음”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²⁾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³⁾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



드라크르와 ‘착한 사마리아인’

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루카 10,29-37).

2) 예루살렘에서 약 25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네, 두 장소 사이에는 민가가 없는 사막이라 자주 강도가 출몰하였다고 한다. 정양모 역주, 『루가 복음서』, 분도출판사, 1984, 107쪽.

3) 인용문들의 진한 색과 밑줄은 필자의 강조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율법교사(바리사이파)가 당신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큰 계명’ (루카 10,25-28)에 이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사마리아인은 기원전 722년 북부 왕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뒤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생긴 혼혈족이다. 이들은 유일신 신앙인 야훼 신앙을 다른 신앙과 혼합한 종교를 신봉해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집회 50,25-26; 요한 4,9 ; 8,48 참조).⁴⁾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를 찾긴 어렵지만 굳이 가까운 예를 찾자면 일제에 부역하며 독립군과 동족을 괴롭혔던 악랄한 조선인 순사가 사마리아인과 비슷할 것이다. 일본인들보다 한술 더 떠 동족을 괴롭혔던 이들의 이야기는 일제를 경험했던 세대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나라를 강제로 삼킨 일본인들보다 더 나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적이 드물어 강도가 출몰하는 길을 지나다 독립군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노린 단순강도일지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속옷만 입은 채 못매를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길 옆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당연히 도와야 할 일본인 승려 또는 일본인 목사는 못 본 척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 부역하는 조선인 공무원(사회복지과)도 이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역시 못 본척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같은 편이었던 이들이 다 그를 외면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 때 조선인 독립군이 그의 곁을 지나간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자가 그들을 괴롭히던 악랄한 순사이다. 당연히 그를 응징해야 하건만 이 독립투사는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루카 10, 33).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비상용 약상자를 풀어 대충 치료하고는 심한 상처 부위에 붕대를 감은 다음 자신이 타고 온 노새에 그를 싣고 근처 여인숙으로 데려 간다. 그는 만주로 돌아가는 길이 바쁜데 일부러 하루를 묵으면서 조선인 순사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는 동포들이 모아 준 군자금의 일부를 여인숙 주인에게 주며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루카 10,35)하고 부탁하며 다시 길을 떠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누가 강도당한 이의 이웃인지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신다. 율법 교사는 당연히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루카 10,37)하고 대

4) 같은 책, 108쪽.

답한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앞의 가장 큰 계명에서와 같이 율법 교사에게 알아들은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신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시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이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를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히며,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 (DCE 31항 가)이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헌신하여 지금 직접 선행을 하는 것” (DCE 31항 나)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라고 하면서 이를 “**보는 마음**” (DCE 31항 나)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보는 마음’이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 (DCE 31항 나)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⁵⁾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부연한 내용을 토대로 교황이 생각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도 자기 몸처럼 보살폈다.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았던 것이다. 두 번째는, “직접성”이다. 이는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 비극, 재난이나 가난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헌신성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것이다.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있는 것을 마음을 담아 다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교황이 말하는 ‘보는 마음’의 속성이다.

5)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네는 사마리아인이 착한 이유에 대하여 그가 선행적으로가 아니라 그가 타자 안에서 인간에게 속한 것과 존엄성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착하다고 한다. 그래서 구차한 동정이나 자선을 넘어서는 것이라 평가한다. “그가 처음 타자를 인식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갈 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타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그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기적인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연민에 사로잡힌 것이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도록 부른다.”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 앞의 책, 315쪽.

3. ‘보는 마음’의 모범인 성인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사랑 실천의 모범을 보인 성인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투르의 주교 마르티노 성인(† 397)을 예로 제시한다. 성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개인적 증언의 가치를 보여주는 표상” (DCE 40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에 얹힌 망토 이야기를 인용한다. 회칙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짧게 한 줄 정도의 분량으로 언급되고 있기에 성인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옮겨본다.

마르티노 성인은 로마군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다. 로마군인의 아들은 반드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당시 관례에 따라 성인은 열다섯 살에 입대한다. 그러나 성인은 그리스도교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기에 전쟁에 나가 살육해야 하는 군인 복무가 싫었다. 다행히 성인은 전투지가 아닌 점령지를 관리하는 주둔군으로 복무하게 되어 지금의 프랑스인 골(Gaul) 지방에 주둔하게 되었다. 성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날로 치면 예비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엘 그레코
‘마르티노 성인과 걸인’

성인이 열여덟 살 때였던 어느 추운 겨울날 주둔지인 아미앵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성문 앞에서 알몸으로 구걸하는 걸인을 만나게 된다. 살이 빨개져 얼기 직전인 걸인의 알몸을 본 순간 성인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빼 그가 두르고 있던 모직 망토를 반으로 갈라 걸인에게 돌려 주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여기 아직 영세를 받지 않은 로마 군인인 마르티노가 나에게 그의 망토를 입혀주었다” 고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성인은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게 되고 스물 두 살에 제대하고 나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 포와티에의 힐라리오를 찾아간다.⁶⁾

6)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9, 303~304쪽 ; Lanzi, Fernando (2004). *Saints and Their Symbols: Recognizing Saints in Art and in Popular*, Liturgical Press. 104쪽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어 마태오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사화(史話)를 인용하면서 이 복음말씀이 성경에만 나오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일어날 일임을 강조한다. 심판 사화에서 교황이 인용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 들였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마태 25,35-40).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별 볼일 없는 미천한 그리스도인(18,6,10,14절 참조)을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인들(12,50; 23,8) 또는 제자들(28,10; 요한 20,17 참조)을 “형제들”로 표현하신다.⁷⁾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작은 이’와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쌍한 사람들(혹은 가난한 이들)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르티노 성인이 망토를 잘라 준 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성인 또한 걸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는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 가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체험은 앞에서도 전제하였듯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우리도 누구든 마르티노 성인처럼 ‘가장 작은 이’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마르티노 성인의 예화를 마태오 복음의 최후 심판 사화와 연결하여 사랑 실천의 모범으로 삼은 이유는 명백하다. 앞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교황이 ‘보는 마음’의 요소로 언급한 무조건적인 응답, 직접성, 헌신성이 교회사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교황은 바로 이어 안토니오 성인을 필두로 사랑의 실천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다른 열

7) 정양모 역주, 『마태오 복음서』, 분도출판사, 1990, 220쪽.

명의 성인들을 소개한다. 이분들은 하나 같이 수도회를 창설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은 물론 이웃에게 바쳤다’ (DCE 40항).

먼저, 안토니오 아빠스 성인은 동방 그리스도교에서 독수생활(eremitical life, 獨修生活)의 모범이었다. 성인은 스무살 때 독수생활을 시작하여 105세로 선종할 때까지 독수자로 살았다. 성인은 “자신의 온 생애를 하느님은 물론 이웃에게 바쳐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 (DCE 40항) 사람이었다. 본래 은수자(隱修者)는 자기를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내외적으로 고독을 추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해 기도하거나 영적 상담을 통해 신자들의 믿음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수자들은 이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음식과 물품들을 소유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사는 은수자들이 늘어나면서 은수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 공동체가 나중에 수도회의 원형이 되었다. 이처럼 교회사 안에서 훌륭한 사랑 실천의 모범이 되는 수도회의 탄생 배경에 안토니오 성인이 자리하고 있다.⁸⁾

두 번째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보호하며 돌보아 주는 (이처럼) 위대한 구조” 이자 ‘인류의 발전과 그리스도교 교육을 위한 수많은 활동을 펼치는” (DCE 40항) 수도회와 탁발 수도회들의 창설자 열 명의 성인을 사례로 제시한다. 물론 여기서 성인들이 섬긴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말해온 이웃이며, 이들을 한 단어로 “가난한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열 명의 성인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냐시오 데 로올라, 천주의 성 요한, 가밀로 데 렐리스, 빈첸시오 드 폴, 루도비카 드 마릴락, 주세페 B. 코톨렙고, 요한 보스코, 루이지 오리오네, 캘커타의 데레사” (DCE 40항) 등이다.

이 성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중세인 12세기(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캘커타의 데레사 복자)에 이른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복음적 청빈을 실천하면서 굶주린 이, 가난한 이, 병든 이들을 섬겼다. 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도회들(3회를 포함)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이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다. 이냐시오 데 로올라 성인은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다. 천주의 성 요한은 거리에 방치돼있던 가난하고 병든 이, 고아, 과부, 정신병자 혹은 수용소에서 치료도

8) 조던 오먼,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흥근이영희 역, 분도출판사, 1991), 64~66쪽.

못 받고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하였다. 가밀로 데 멜리스 성인은 ‘천주의 성 요한’ 과 더불어 병원, 간호사, 그리고 병자들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병자들을 위해 생애를 바쳤다. 성인과 성인이 창설한 가밀로회는 병자를 돌보는 기술 보다 병자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은 것으로 유명했다. 성인이 창설한 수도회는 성인의 삶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해 병자, 환자들을 포함한 모든 병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제4서약을 한다. 빈첸시오 드 폴은 프랑스에서 당대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섰고, 같은 목적을 갖는 여러 수도회들을 창설하였다. 루도비카 드 마릴락 성인은 빈첸시오 드 폴 성인과 함께 ‘애덕의 수녀회’ 를 창설하였다. 성인과 성인이 설립한 수도회들은 병원, 고아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성인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 경영기술로도 유명하였다. 코틀렝고 성인은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많은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였고, 직접 세운 복지시설들을 관장하는 성 삼위일체 사제회,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카리스마로 하는 성 빈첸시오 드 폴 수사회, 성 빈첸시오 드 폴 수녀회와 여성 재소자를 위해 봉사하는 ‘테이 수녀회(Sisters of Thais)’ 등을 설립하였다. 요한 보스코는 청소년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한 성인이다. 특히 성인은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루이지 오리오네 성인도 요한 보스코 성인처럼 청소년들의 복지에 관심을 쏟았다. 성인은 여러 곳에 청소년을 위한 집을 개설하고 복지와 신앙교육 영역에서



‘성 프란치스코
와 문둥병자’

큰 기여를 하였다. 캘커타의 데레사 복자는 인도 캘커타에서 역시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⁹⁾

이 성인들은 본 회칙 21항에서 24항까지 열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 영역 가운데 하나인 “사랑 실천”의 모범 사례들이다. 이 성인들은 하나같이 “과부와 고아, 죄수, 병자들과 온갖 궁핍 속에 사는 가난한 이들”(22항)을 섬겼다. 성인들은 이들에게 영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왔다. 대상자들의 영과 육 전체의 치유를 위해 헌신한 것이다. 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이 반드시 사회적 성격을 띠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성

9) 여기서 열거한 성인들의 삶과 업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는 「가톨릭 사회복지」 33호~35호 참조, 그리고 이 부분은 필자가 집필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설 2-4(「가톨릭 사회복지」 36호)와 같은 내용임을 밝혀둔다.

인들이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사람들 이기 때문” (40항)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희망**은 실패에 직면해서 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인내의 덕과,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어둠의 때에도 하느님을 믿는 겸손의 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아드님을 내어 주셨음을 알려 주며,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참된 진리에 대한 승리에 찬 확신을 줍니다.……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신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어둠에 싸인 세상을 언제나 밝혀 주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빛, 유일한 빛입니다” (39항).

4. 가장 탁월한 사랑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

교황은 성인들의 이어 41항에서 성모님이 사랑 실천의 탁월한 모범이 되시는 이유 네 가지를 제시한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킨다. 이는 달리 사랑 실천의 영성인 ‘보는 마음’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4.1 ‘보는 마음’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첫째, 성모님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도와 이웃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신” 분이셨다. 교황은 루카복음 1장에서 성모님이 사촌 엘리사벳 성녀를 방문하여 ‘석 달 가량’ (56절) 함께 지내며 출산을 돌보는 모습을 ‘사랑’으로 해석한다. 성모님은 사촌을 방문할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카 1,31)는 통고(通告)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도 임신 육개월 중이었다(루카 1,36). 당연히 산모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십대 중후반의 나이에 불과한 마리아는 사촌의 시중을 들기 위해 찾아간다. 머문 기간이 세 달이었으니 출산할 때까지 함께 한 것이리라. 그런데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안에서 즐거워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모님이 받은 계시를 이미 알고 성모님의 믿음을 칭송한 점이다. 성모님은 그 찬사에 대하여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로 답하신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루카 1,46). 교황은 이 구절이 성모님의 일생의 계획을 모두 드러내주는 것이라 해석한다.

성모님은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받았을 때 유대 율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처녀 임신을 받아들이셨다. 두려움과 의혹이 있었지만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라고 천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이 태도는 교황의 표현대로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들어 높이시고자” 하신 태도이자, “겸손되어 그저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신” (루카 1,38.48참조) 모습의 표현이다. 이는 성모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대신 하느님을 내세움으로써 ‘세상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 (41항)는 뜻이다.

둘째, 성모님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신” 희망의 여인이셨다. 교황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셨다”고 본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한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그 분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예’ (Fiat)라고 답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성모님의 ‘피아트(언제나 하느님의 요청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 평범한 신자들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봉사가 현세에 그치지 않고 내세에도 이어지는 일이며 궁극에 인간 구원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다해 봉사하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것” (35항)이다.

셋째, 성모님은 ‘믿음의 여인’ 이셨다. 교황은 성모님이 믿음의 여인이 되시는 이유를 ‘마리아의 노래’에서 유추한다. 이 노래에서 성모님이 이미 성경(곧 구약)에 매우 익숙해있고, 또 성경말씀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되며,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생각이 얼마나 하느님 생각을 따르고, 성모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항)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성모님의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 회칙에서 말하는 대로만 보면 성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방법이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각자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까닭이다. 틈틈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믿음도, 또 우리 자신이 그 구원계획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과도한 요구와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담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결국 주님 손에 들린 도구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더 나은 세상을 이룩하는 일이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지나친 자만을 버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 드릴 것입니다” (35항).

마지막으로, 성모님은 “사랑하는 여인” 이셨다. 교황은 성모님이 사랑의 여인이신 이유의 예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보이는 그분의 고요한 몸짓’,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시고...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물러나 계신 겸손함’,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때 제자들이 모두 달아나는 데도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는’ (요한 19,25-27 참조) 용기, 오순절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시는’ (사도 1,14 참조) 모습 등을 든다. 하나 같이 겸손하나 용기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교황은 성모님의 이 모습이 믿음에서 온다고 본다.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신앙인이시니” (41항) 사랑의 여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황은 성모님을 복음삼덕을 완벽하게 실현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 믿음,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인데, 성모님은 이 세 가지 덕을 당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신앙인들이 이 복음삼덕을 추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실천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겠다.

4.2 영성의 샘이신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인간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42항). 교황은 자신이 사랑 실천의 모범으로 제시한 성인들의 삶이 이 지상의 삶뿐 아니라 죽은 다음의 세계에도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통공(通功)을 강조한다. 성인 그리고 성모님의 삶이 과거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현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애로운 은총과 사랑으로 연결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나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분들이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사랑에 대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어 성인들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영성을 앞에서 예로 든 십자가 영성을 제시한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들은 인간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티노 성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교황은 회칙 15항에서 이미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구절을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너무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폐쇄적이거나 이웃을 미워한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됩니다. 요한 성인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며,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16항)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이 “오로지 하느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질 때만 가능”(18항)하다고 보았다. 교황은 이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눌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둘이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내밀한 만남’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배경은 앞서 행동주의에 대하여 경고한 내용에서 확인한 바다.

5. “보는 마음”의 양성(Cordis Formatio)

“‘보는 마음’은 ‘마음의 양성’이 도달해야 할 원칙이자 목표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DCE 31항 가)고 하면서 마음의 양성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지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 수 있는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DCE 31항 가)으로 인간에게 “적절한 전문적 도움 이상의 무엇”을 줄 수 있고,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DCE 31항 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DCE 31항 나)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노력해가는 것이 마음의 양성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이 애초에 자신에게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사랑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성인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처음부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

5.1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사랑 ‘보는 마음’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본 회칙 14항 마지막에서 “사랑의 ‘계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다.¹⁰⁾ 우리는 이것을 교황이 요한의 첫째 서간의 말씀 “하느님은 사랑이시

10)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것을 당신의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 1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류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계속 존속케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 소명, 능력,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입니다.”

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4,16)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곧 하느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모습”(DCE 1항)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랑할 가능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1요한 4,10 참조),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은총’에 대한 응답”(DCE 1항)을 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인간 사랑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구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DCE 1항).

5.2 일상의 예를 통해 유추해보는 ‘보는 마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느님께 그럴 만한 요소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 하였다. 실제로 도무지 자기 밖에 모르던 이들이 동물을 키우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직업에 대한 사랑, 친구간의 사랑, 일에 대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DCE 1항) 등 다양하다. 이 사랑이 다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신을 내어준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다.

1)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보는 마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사랑의) 이러한 다양한 의미 가운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없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고, 마다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한 약속이 인간에게 드러납니다. 이는 뛰어난 사랑의 원형처럼 보여, 다른 온갖 사랑은 그와 비교할 때 빛을 잃어버리는 듯합니다”(DCE 2항)라고 하며 남녀 간의 사랑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로 간주한다. 남녀 간의 사랑이 본 회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로스와 아가페를 일치시키는 사랑이라 보는 까닭이다. 교황에 따르면 이성 간의 사랑은 자칫 ‘일종의 도취’, ‘신적인 광기’(DCE 4항)로 인

간성을 타락시키는 광적 열정인 에로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로에게 자신을 조건 없이 주는 아가페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¹¹⁾ 남녀 간, 그리고 이후 완전한 성사혼에서 실현되는 ‘혼인적 사랑(conjugal love)’¹²⁾은 아가페가 에로스에 ‘정화와 성숙’ (DCE 5항)을 통한 치유와 진정한 위대함의 회복을, 에로스는 아가페에 육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을 이원성 안의 일치로, 곧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융합되고 그리하여 정신과 물질이 모두 새로운 고귀함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실재” (DCE 5항)가 되게 한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참다운 실재가 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랑에 이르면 “이제 다른 이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된다. 사랑은 더 이상 자기를 찾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도취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사랑은 **포기**가 된다. 사랑은 **희생하겠다는 각오**이고, **바로 그 희생을 찾는 것**” (DCE 6항)이 가능해진다. 이어 이 사랑은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정화되어 결정적인 “배타의 의미와 ‘영원’ 이라는 의미” (DCE 6항)를 지니게 되어, 궁극에 ‘영원’ 을 바라보게 된다(DCE 6항).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만을 찾는 닫힌 자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자기를 줌으로써 자아를 해방시키고,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 (DCE 6항)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루카 17,33)라고 하심으로써 드러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당신 자신의 길” (DCE 6항)이기도 하다.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의 길” (DCE 6항) 말이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의 희생과 당신 안에서 완성된 사랑의 원리에서 출발한” “사랑의 본질과 인생의 보편적인 본질” (DCE 6항)을 밝히신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남녀가 짧은 순간이지만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모습과 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가정을 이루는 부부들

11) 교황은 이 회칙에서 에로스가 황홀경과 같은 측면 있는 것으로 본다. 교황은 “에로스는 ‘황홀경’ 의 상태에서 신에게로 올라가고, 우리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DCE 5항)이라고 하면서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열정이 때로 이타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여기서 찾는다.

12) D. von Hildebrandt, 『Marriage : the mystery of faithful love』 (줄역, 『혼인, 충실한 사랑의 신비』, 사람과 사랑, 2011) 참조.

의 모습에서 ‘보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애초에 우리 안에 심어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데 이것이 마음의 양성이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부모가 되면 이타적으로 변한다. 자식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 이 사랑이 조건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른바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이것이 인간이 한 동물 종(種)으로서 갖는 본능일 뿐 하느님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



연의 이치일 뿐 반드시 이웃 사랑과 연결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태도가 생활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가족 이기주의’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모의 사랑 역시도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것이라고 본다. 앞에서 본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 자녀이고 이 자녀가 하느님의 선물인 까닭이다.¹³⁾

또한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를 잃거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일시적이지만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연민은 이웃에 대하여 갖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라 볼 수 있다. 구약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아’를 이웃으로 여기는 오랜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동물계에서 보편적으로 발

13) 리비오 멜리나는 “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이 이름을 받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에페 3,14) 꿇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아이가 오는 곳은 저 너머 어디” 라고 말한다. Livio Melina, Learning to love in the School of John Paul II and Benedict XVI(줄역, 『가톨릭 사랑학의 계보』, 사람과 사랑, 2010, 117쪽).

견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하느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누구나 그리고 이 사랑의 연장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3)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the other)’를 통한 초월

유대계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을 통해 누구든 사랑(자신을 조건이 내어준다는 의미)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타자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웃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 타자를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초월해 이타적인 주체로 설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거의 그리스도교 신학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복음적이다.

그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웃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얼굴의 현현’을 통해 접근한다. 그는 타자의 얼굴의 “현현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즉 참된 인간성의 차원의 열어 준다”¹⁴⁾는 의미에서 일종의 계시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는 경험하는 주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로부터 나타나는 ‘절대적 경험’이라서외재적이고 명령적이다. 그에게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윤리적 호소로 다가온다. 그의 얼굴을 통해 “타인의 곤궁과 무력에 부딪힐 때 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부당하게 나의 소유와 부와 권리를 향유한 사람임을 인식한다. 타자의 경험은 내 자신의 불의와 죄책에 대한 경험과 분리할 수 없게 된다.”¹⁵⁾ 그런데 나에게 호소하는 얼굴의 힘은 역설적으로 강자의 힘이 아니라 타자의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서”¹⁶⁾온다.

일 예로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시선을 들 수 있다. 갓난아이의 얼굴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부모의 보호(젖을 포함한다)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부모가 당연히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요청하는 신호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왔으므로 이 신호는 하느님께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이에게 내 놓으라는 명령과 같다. 그리고 나의 자유와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라 본래 아이의 것이었음을 깨닫도록 요구한다.

14)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Duquesne, 2011, p.188

15)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11, 36쪽.

16) 같은 책, 35쪽.



두 번째로, 아래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이다. 가운데 그림은 이 그림에서 아버지만을 클로즈업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옆의 그림은 아버지의 눈만을 클로즈업하였다. 이 그림은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는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두 아들 가운데 제 몫의 유산을 모두 챙겨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온 막내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장면 직전의 이야기를 이 비유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20절).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0절). 이 구절들을 미뤄보면 이 그림은 입을 맞추기 전이거나



뒤를 그린 것
일 가능성이
높다. 렘브란
트는 아버지

를 노쇠한 얼굴로 그린다. 그리고 한
쪽 눈이 안 좋아진 것으로 묘사한다.
본래 이 비유와 그림은 아버지(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런데 이를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의 독해가 가능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에게 먹이는 열매도 얻어 목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아들의 얼굴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아들의 얼굴은 아버지에게 무한한 연민을 자아내 ‘가엾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서 보내는 명령에 순종하여 큰 아들의 정의를 거스르면서까지 막내에게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 뿐 아니라 큰 아들에게 한 번도 내준 것이 없는 살진 송아지를 잔치 음식으로 쓰라고 내준다.

이들 예에서처럼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타자의 “무저항은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연약함과 다른 개념이다. 만일 타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동정을 불러 일으킨다면 타자는 나의 선의와 자선에 종속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의 얼굴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무력함 자체가 도움에 대한 명령이다. 예컨대 궁핍 속에 있는 이웃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에 직면하게 한다. 그의 궁핍과 곤궁이 하나의 명령으로 나에게 다가온다.”¹⁷⁾ 이 때 나는 자신을 포

기함(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나가 된다. 그리고 이 때 타자는 나의 선의와 자선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자신을 벗어나 그를 모실 때 비로소 그와 동등할 수 있다. 타자를 처음부터 나와 동등한 자로 생각할 때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¹⁸⁾

레비나스에게 초월은 초자연적 경험이 아니라 바로 타자의 얼굴이 우리에게 하는 윤리적 요청에 응답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타자가 내게 다가오게 되면서부터 나는 나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도전을 받는다는 의미) 곧 바로 타자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 곧 본래적 의미의 인간인 나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황이 말하는 ‘보는 마음’ 이 하느님의 요청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5.3 마음의 양성

그러면 내게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대상이 있을 때 그들한테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 처럼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엾은 마음’ 을 가질 수 있을까? 레비나스가 말한 것처럼 타자의 얼굴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동안 잘 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쳐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른바 ‘보는 마음’ 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¹⁹⁾

17) 같은 책, 35쪽.

18) 같은 책, 37쪽. 이렇게 함으로써 타자의 얼굴은 나만이 누리던 자유가 부당함을 일깨우고 타인을 수용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타인을 환대하도록 요구한다. 응답을 요구하는 타인의 부름에 내가 ‘응답할 때’ 나를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울 때 나는 비로소 ‘응답하는 자’로서 ‘책임적 존재’ 또는 윤리적 주체로 탄생한다. 이것이 레비나스가 제시한 참인간이 되는 방법이다.

19)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평적 의미의 양성의 세 가지 목표로 공감적 정서(타자와의 관계), 도덕적인 느낌(자유로운 수용), 그리고 연대성(타자에 대한 개방) 등을 들었다. 먼저, 그녀는 공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공감적 균형이 생겨 이것이 하느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의 내면화를 촉진해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를 넘어 다른 이들에 대한 의무를 고려할 수 있는데 까지 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책임, 그리고 판단의 준거와 동기부여의 준거와 같은 핵심적인 수단들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이 자유와 책임의 종합을 이뤄내도록 하는 도덕적 감정의 양성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핵심을 담고 있는 진리에 몰입하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키워준다. 마지막 연대성은 타자에 대한 수용, 동반, 연대성을 통해 타인들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도록 이끄는 능력이다. 이 연대성을 확장하는 임무는 주로 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앞의 책, 316~322쪽.

1) 사랑을 통해 자라는 사랑

교황은 사랑은 사랑의 체험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을 망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사상처럼 ‘타자’의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은 사랑을 통하여 자라는 것”(DCE 18항)인 까닭이다. 사랑은 그 본질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눌 때 더 자란다. 본래 우리 안에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보는 마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일깨워지고, 체험이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 또한 “기꺼이 내 이웃을 만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만 나는 하느님께도 마음을 쓸 수 있다. 내가 이웃에게 봉사할 때에만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DCE 18항)는 것이 교황의 생각이다.

2) 생명의 샘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성체성사’

교황은 “인간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요한 7,37-38 참조). 그러나 그러한 샘이 되려면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새 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그 원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에 찢린 그분의 심장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나옵니다”(DCE 7항)라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황은 이어 12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분의 십자가 위 죽음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슬러, 인간을 들어 높이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행위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가장 철저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찢린 옆구리(요한 19,37 참조)…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살아가고 사랑하여야 할 길을 찾아냅니다”(12항). 하느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이 자기를 조건 없이 내어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 죽음이 보여주고 있고, 그분의 찢린 옆구리에서 피와 함께 흘러 나온 물은 앞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 달려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의 모습을 늘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를 통해 이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길어 올릴 수 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행위에 우리를 끌어들이니다. 우리는 강생하신 로고스를 단지 받기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역동적인 행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DCE 13항), “영성체는 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을 지향하도록,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루는 일치를 지향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한 실존 안에 완전히 결합된 ‘한 몸’ 이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참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찬례에서 하느님 자신의 아가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DCE 14항). 성체성사가 이러한 힘을 갖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쉬워진다.

교황은 성인들의 예를 통해 성체성사가 전례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인들-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복자의 예를 생각해봅시다. -은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이웃 사랑의 힘을 끊임없이 길어 올렸으며 거꾸로 그 만남은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더욱 생생해지고 심오해졌습니다” (DCE 18항).

3) 관상과 활동의 일치

외적인 사랑 실천 행위만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의 원천이 필요하다. 이 내적인 힘을 기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다. “하느님께 기도하며 바치는 시간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효과적인 봉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봉사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DCE 36항)주는 까닭이다. 그리고 “착한 목자는 관상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그럴 때만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떠안고, 그 요구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나약함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 ‘안에서는 관상으로 드높여지지만, 밖에서는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다’” (DCE 7항). 이처럼 교황은 기도(관상)가 활동의 뿌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 자신의 눈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



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황의 생각이다(DCE 18항). 아울러 그 때 “하느님의 의지가 내게는 더 이상 계명을 통해 외부에서 강요되는 낯선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서 나 자신보다 더 깊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 자신의 의지가 된다. 그리하여 점점 더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17항).

4)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불행과 비극,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육백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사건처럼 때로 역사에서는 하느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허다하다. 이럴 때조차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교황의 생각이다.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깊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른 모든 사람처럼 복잡하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DCE 38항).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보는 마음’을 더 자라고 강하게 할 수 있다.

5) 성모님을 닮고 따름

마지막으로, 교황은 회칙 끝 부분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황은 우리 모두가 사랑 실천을 통해 생명의 샘이 되는 방법을 성모님의 네 가지 모습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느님과 이루는 가장 내밀한 일치를 통하여 완전히 하느님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성모님의 “자기를 찾지 않고 오로지 자비를 베푸는 순수한 사랑”을 깨닫는 것을 제시한다. 교황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시는” (42항) 까닭이다. 교황은 이 방법을 회칙 마무리의 기도에서 알려준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어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선의 샘이 되셨나이다.” 이는 앞에서 성모님이 희망의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신 이유와 같은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성모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닮을 때 하느님에서 비롯되어 그분과 연결돼 있는 샘 줄기에 닿을 수 있고,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게(혹은 물을 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소서. 저희를 예수님께 인도해주소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어 저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마른 세상 한 가운데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되게 하소서” (42항). 기도의 이 끝 부분은 성모님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기도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 인도해주실 수 있으며, 참된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다. 결국 성모님의 “자애로운 은총과 언제나 그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이 여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이 성모 마리아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께 의탁할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6. 맺음말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따라 가톨릭 사랑실천의 원리이자 영성인 “보는 마음”을 살펴보았다. “보는 마음”은 여러 차례 반복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자 목표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가능성을 심어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다른 이들에 비하여 반응이 더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차이일 뿐 누구든 반드시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다.

교황은 언제든지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초월하여 타자에게 자신을 주는 이타적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교황은 이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진 않는다. 다만 여러 맥락에서 독자들이 이 내용을 유추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의 다섯 가지 양성방법은 이 방식으로 필자가 회칙 전체에서 유추한 것이

다. 이 지침들을 읽을 때 느꼈겠지만 이 방법들은 원칙이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행세칙이 아니다. 이제 이 방법들은 이제 지역교회의 담당자들이, 또 각자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보게 된다. 본고는 이런 면에서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먼저 자신의,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들 전체의 ‘보는 마음’을 키우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PART 02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에
대한 실무적용 논의

- 조별활동

2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에 대한 실무적용에 대한 논의

조별활동



PART 03

가톨릭 사랑실천
영성에 대한 실무적용
발표

- 조별활동

3

가톨릭의 사랑 실천 영성에 대한 실무적용 발표

조별활동

PART 04

중간관리자 의사소통 기술의 실제

- 정신희 관장
(동작종합사회복지관)

4

중간관리자 의사소통 기술의 실제

정신희 관장(동작중합사회복지관)

1. '나'와 마주하기



티모테오후서 2:20~21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 돌아보기 : 내가 되고 싶은 그릇은?

■ 살펴보기 : 나의 표현 스타일

문항	답	성향	문항	답	성향	문항	답	성향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언어적 표상체계를 통한 상호대화

1. 의사소통과 표상체계 20)

어떤 관계 형성에서든지 상대를 그의 수준에서 만난다는 것, 그의 입장에서 마주 앉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언어적 표상체계(Verbal Representational System)는 언어적 표현들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의사전달을 하는 것으로써 상호관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는데 중요한 기법으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관계의 형성에서는 서로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코딩하는 정보,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적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의 표상을 지칭하여 표상체계(Representational System)라고 한다. 즉 세상을 지각하고 내적으로 경험을 표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감각을 내적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표상과정은 특수하게 지각된 양식들에 의해 완성된다. 즉 시각적(Visual), 촉각적(Kinesthetic), 청각적(Auditory), 미각적(Gustatory), 후각적(Olfactory) 양식들이다. 이러한 양식들 중에서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인 것을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특수한 표상적인 체계들이다.

이들 언어적 표상체계들 중 어느 하나는 개인이 그의 내적, 외적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제1차적이고 주요한 표상의 체계이다. 즉 선호표상체계(Preferred Representational System)라고 한다. 다음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1. 청각적인 사람은 말하는 언어를 통하여 더욱 쉽게 접촉될 수 있다.

그는 대부분 음색(tone), 음량(volume), 음악고저(pitch)에 민감하다.

예) 들리는 소리가 싫으면 일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다른 잡음을 싫어한다.

2. 시각적인 사람은 그에게 보이는 어떤 것에 더 쉽게 영향된다.

그는 색깔, 형태, 크기들에 반응한다.

예) 규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잘 정돈시킨다. 몸가짐이나 집안의

20) 조옥진, 「가정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산:부산가톨릭대 2003, 43-48쪽



장식에 신경을 쓰고 보기가 안 좋으면 일하기 싫어 한다. 그래서

먼저 잘 정돈한 후에 일을 한다. 꽃을 보고 좋아하는 타입이다.

3. 촉각적인 사람은 만지는 것에 민감하다. 압박감이나 체온들이 그에게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 집에 있는 장식물들을 잘 만지려고 한다. 앉아 있을 때나 누울 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지거나 자기가 남
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실례 : 표상적 체계를 통한 언어의 종류>

1) 시각적인 사람

시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와 연관되어 있다. 이 사람은 상상
할 때는 마음 속에 그려보고, 기억할 때는 한 장면을 회상한다. 눈을 통해서 삶을 경험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주로 영화,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 사람들, 미술전람회,
풍경들을 관람하는 시청자이다. 이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수집하거나 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
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한다.

시각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 것보다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
서 더 많이 얘기한다. 시각적인 사람은 종종 화가 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
다는 잠시 물러나서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인 사람은 전화로 대화하는 것
보다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하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 누가 편지를 읽어주는 것보다
는 먼저 그 편지를 보기를 원한다. 시각적인 사람이 여행을 할 때는 누가 지도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살펴보기를 더 좋아한다. 시각적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때는 꽃다발이나 또는 사랑의 편지 등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각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즐겨 사용한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백지입니다.”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다음 문장을 사용하면 좋다.

“참 보기 좋은데요”

“당신과의 말 한마디가 나의 하루를 아주 밝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 해변에 같이 있었던 것이 눈에 선해요.”

만일 자신이 “느낌이 좋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시각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보기에 좋은데” 로 바꾸는 게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상대방은 나의 언어적인 발전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영문도 모르는 채 보다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시각적인 사람이라면 거실에 새 의자를 구입할 때 의자가 얼마나 안락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외에도, 그 거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논한다. 만약 휴가철에 어느 조용한 먼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한다면 시각적인 사람에게는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다.

2) 청각적인 사람

청각적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보는 것보다 듣는데 관심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청각적인 사람이라면, 새로 구입한 옷이나 머리 모양, 또는 방의 가구 배치, 마당의 화초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타입의 사람에게는 보여 주기보다는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청각적인 사람에게 긴 시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들은 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느낌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청각적인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가장 잘 이

해한다. 청각적인 사람은 말의 어조의 변화나 음성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린다. 전화는 이런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청각적인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서 조용한 순간들이 생기면 이이냐기를 하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또는 콧노래를 부르거나 해서 소리가 들리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조용한 것을 더 좋아한다. 가끔 청각적인 사람들이 침묵하는 경우도 이끈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화를 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소리들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청각적인 사람들을 로맨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청각적인 감각은 대단히, 예민하므로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

다음은 청각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자연의 소리를 즐기기, 대화, 토론, 충고하기, 음악감상, 연주회 가기, 악기 다루기, 강의 듣기, 강의하기, 가르치기, 전화걸기

청각적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들을 살펴보면

“그거 좋게 들리는데.”

“내 귀에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

청각적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 보다는 “멋있게 들리지 않아?” 로 “나와 새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새로 나온 영화를 보러 가자는 내말이 어떻게 들려요?” 라고 물어본다.

3) 촉각적인 사람

촉각적인 사람은 자주 만지는 편이며 종종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이 타입의 사람들은 친밀감이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사고보다는 직관적인 사고에 더 능한 ‘오른쪽 뇌가 더 발달한’ 사람들이다. 신체적인 편안함

과 육체적인 감각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다.

촉각적인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희로애락을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느낌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감정들을 그들의 목소리의 어조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타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촉각적인 사람들은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인 사람들보다 더 즉흥적이다. 이 특징은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스케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의 계획을 망쳐 놓을 수도 있다.

다음은 촉각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다.

“좋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해”

“그 사람은 정말 민감해”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아주 좋은데”

“나는 당신 가까이 있는 게 좋아”

또한 만지다, 긴장하다, 압박을 받다, 가슴이 아프다, 부드럽다, 매끄럽다라는 단어들을 촉각적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

시각적인 사람은 “그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하고, 청각적인 사람은 “그게 좋게 들리는데” 라고 말하는 반면에, 촉각적인 사람은 “그거 괜찮게 느껴지는데” 라든지 또는 “그거면 편하겠어” 라고 말한다.

촉각적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접촉 또는 감정적인 자극으로 가득 찬 활동들을 제안함으로써 반응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미각이나 후각과 같은 다른 지각을 동원하면 더욱 좋다. 촉각적인 사람들 중에 특히 미식가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의 식사는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

촉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감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화중에 종종 만져주기를 바란다.

4)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가. 시각적인 사람과 청각적인 사람 사이의 만남의 예

청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사람의 옷 입는 수준을 못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청각적인 사람이 시각적인 사람보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사람은 집안의 깔끔함이나 정리정돈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청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사람이 적어 준, 눈으로 볼 수 있는 쇼핑목록은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말로써 이야기해 준 쇼핑목록과 여러 지시들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적인 사람에게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시각적인 사람과 촉각적인 사람 사이의 만남의 예

시각적인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도 조금 비뚤어지게 걸려지는 액자를 그냥 보지 못한다. 촉각적인 사람은 대화하는 중에도 손을 잡거나 다독이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시각적인 사람은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사람은 촉각적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촉각적인 사람에게는 악수나 다독여주는 행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촉각적인 사람은 눈길을 끄는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더 좋아한다. 시각적인 사람 눈에는 그가 누추한 흰 셔츠를 걸친 것으로 보이지만 촉각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편안하고 좋게 느껴질 뿐이다.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 시각적인 사람은 방이 새롭고 깔끔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촉각적인 사람은 편안하고 좋아 보이기를 원한다.

이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두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가구를 고르는 일이다.

촉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사람에게 자신이 사물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시각적인 사람은 촉각적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느낌을 개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깊은 수준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나 또는 의사소통의 스타일을 찾아야만 한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의사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한 가지 우세한 감각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대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감각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는 일이다.

나의 언어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한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한다.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상대방과의 상호관계에 큰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II. 가톨릭 사회복지와 가톨릭 사회복지인의 정체성

1)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정체성의 구성요소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구성적 요소에 대하여 다른 교황 회칙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유일하다. 이 회칙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신이 사랑(Caritas)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박은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 신자 개개인의 본분이지만, 또한 온 교회 공동체의 본분” (20항)이라고 가르친다.

① “그리스도인의 사랑실천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31항)

- 모든 순간에 요구호자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가고, 가능한 조건을 다 동원하여 그 필요한 응한다.

②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그들이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가들에게는 전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성’이 필요합니다.(31항)

-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이러한 전문적 역량과 정과 수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여 그들이 풍부한 인간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함도 필요하다.

③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당파적인 전략과 원칙에서 벗어나, 기회가 닿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헌신하여 지금 직접 선행을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이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다. 사랑실천은 기관의 이해관계, 실천주체의 개인적 영예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④ “사랑은 오늘날 개종 권유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임을 압니다.

- 구원에 대한 포괄주의적 접근이다. 거시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이용자나 그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기관에 종사하는 비신자들에게 신앙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바르지 않은 것이다.

⑤ “사랑의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증대하는 세속주의와 행동주의에 직면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거나 하느님께서 예견하신 일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36항)

- 사랑의 실천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구조나 정치적 선택, 폭력적 수단 등 특정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말도록 권고하고, 그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⑥ “교회 기관들은 그들의 투명한 운영과 충실한 사랑의 증언으로 국가기관들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을 보여줄 수 있으며, 상호조정을 모색하여 사랑의 섬김의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30항 나)

- 투명성은 재정, 운영, 인사 모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범을 따른다는 뜻이며, 이 가운데 재정의 투명성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 투명성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관자체에서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⑦ “신자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것을 거절당하는 어떠한 빈곤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20항)... “교회는 이러한 보편적 사랑의 계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회의 가족 안에서 어떤 구성원도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25항 나)

- 교회 스스로 보편적 사랑을 선포하면서 정작 가까운 공동체 구성원을 간과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2) 사회교리에서 정체성의 구성적 요소

가톨릭 신자들이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의 영성을 실천할 때 실천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근거로 삼게 되는 거룩한 전통 가운데 현대에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가르침이 가톨릭 사회교리이다.

사회교리는 사랑의 최고계명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러한 존엄성에서 인간의 자연 권리와 의무가 나타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초위에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와 공동선의 원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는 이러한 원리들에 따라서 신자들과 교회가 참여하는 기관의 운영자, 종사자들에게 “사회의 상황, 구조 그리고 체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 ① 사회교리가 항상 중심에 두어왔고, 중심을 두어야 할 일은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는 일이다.
- ② 사회교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 ③ 사회교리는 모든 책임과 결정을 지역공동체들과 제도들 안에서 개개인이 주도권을 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지의 보조성 원리를 지지한다.
 - 보조성 원리는 도움, 도움을 줌을 뜻하며, 주로 커다란 그리고 상위의 조직체들이 중간에 존재하는 조직체들의 권리나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가리킨다.)
- ④ 사회교리는 연대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 하나의 인류가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로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와 발전을 증진시킬 상호의무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 ⑤ 사회교리는 공동선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 평등에서 나온다.
공동선은 도덕적 선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⑥ 사회교리는 사랑과 정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 둘을 일치시켜 본다.

Ⅲ. 사고 전환하기

1. 좋은 점을 찾아내는 연습

두 남자가 감옥의 창살 사이로 창밖 풍경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흙탕물로 더럽혀진 거리를 내려다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창공에 떠 있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제임스엘런/작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2. 자기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내가 가치있는 사람일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치있다 생각한다. (오프라 윈프리/방송인)

당신이 정말 귀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진실한 요구입니다.

3. 남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

우리에게 왜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이 있는지 아는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무명씨)

당신이 나를 부르는 곳, 언제나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어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가장 긍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
(사도 바오로)

진실한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5.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헬렌켈러/작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6. 기적을 부르는 사고방식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고 행동해야만 한다.
(허버트 웰스/소설가·문명비평가)

행운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점을 찾도록 하십시오

7.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지, 당신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셰익스피어/극작가)

나는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8.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네가 정말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명할 필요는 없다.

(케네스 블랜차드/컨설턴트·작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므로써 당신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9.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열정

네가 결정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열정이 너를 태울 것이다.

(빈스 롬바디/축구감독)

우리를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한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10.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이상적인 인간은 삶의 불행을 위엄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뎌내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철학자)

원치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11.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는 아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세네카/철학자)

우리는 오직 준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좋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2. 목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밧줄이 가까이 왔을 때, 꼭 붙잡으십시오
(프랭클린 루스벨트/미국 32대 대통령)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순간, 목표는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13. 솔직한 태도가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행동을 하라, 마지못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무명씨)

당신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14. 행복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많은 긍정적 사고를 가진 기업이 부정적 사고를 가진 기업을 인수해 부자가 됐다.
(로버트 앨런/기업가)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15. 작은 사랑이 널리 퍼져나간다

감사는 정중함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다.
(자크 마리탱/철학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웃음을 보내십시오. 더 큰 사랑이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16. 오늘이 마지막인것처럼

누군가와 관계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오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그 맨디노/작가)

활짝 열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17. 그 어떤 것도 늦지는 않았다

늦어서도 너의 영혼을 젊고 섬세하게 지켜라. 죽음에 이르러서도 인생은
언제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조지 샌드/작가)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IV. 해결안 중심 접근법

1. 해결안 중심 접근법이란 무엇인가?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사람, 팀,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이며 그 효과가 입증된 접근방법이다.

문제점 대신 해결안에, 과거 대신 미래에, 실패한 일 대신 잘 풀리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긍정적, 실용적인 개선이 가능해진다.

1) 문제점 중심과 해결안 중심

문제점 중심	해결안 중심
과거	미래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일	잘 진행되고 있는 일
비난	진진
통제	영향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협력
부족	자원
복잡	간단
정의	행동

2) 해결안 중심 접근법의 이점

○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더 많이, 더 자주 하도록 유도하면 관련자 모두가 긍정적이고도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언제부터 성공의 기미가 보였는가?’ 와 같은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어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가?’ 와 같은 물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활기, 열정,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해결안 중심 접근법의 활용

○ 이 해결안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이 될 것이다.

4) 맞춤 해결안

○ 해결안 중심 접근법이

- 처방전은 아니다
- 첫 번째 시도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패없는 수단은 아니다
- 사람들은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다
-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삶의 방식’ 은 아니다

○ 단순히 ‘긍정적 사고’ 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대개는 ‘긍정적’ 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사고’ 는 이 접근방법에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 자신만의 실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자 스스로의 특성, 각자가 속하는 팀 또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에게 맞는 해결안을 발견해야 한다.

2. SIMPLE 모델

문제가 아닌 해결 (Solutions not problems)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Inbetween—the action is in the interaction)

이미 가진 것을 활용 (Make use of what's there)

가능성-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ossibilities—past, present and future)

언어-단순하게 말하기 (Language—simply said)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다 (Every case is different)

1) 단순성의 힘

○ 단순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효과가 있는 특정한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보다 더 복잡한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다

○ 우리는 해결안 중심을 받아들이 가능한 단순한 길을 가려고 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더 복잡한 방법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적 태도’이다. 이는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판단하여 해결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태도이다.

2) 행동을 바꾸거나 관점을 바꾸자

○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

○ 아무도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실천해 보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는 것이다.

예) 사무실의 누군가가 얼마동안 특별교육을 받고 돌아왔지만, 정작 사

무실에서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다.

○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관점’에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변화로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현상유지일 수 있다

○ 해결안 중심 접근법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해결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문제가 아닌 해결 (Solutions not problems)

“삶의 문제의 해결은 삶의 문제의 소멸에서 발견된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1) 문제대신 해결에 집중하자

2) 해결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자

3) 유용한 변화를 확장하자

- 4) 플랫폼 구축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잘 활용한 것이다.
- 5) 변화를 원하는 고객을 발견하고 참여시키자
- 6) 완벽한 미래를 묘사해보자 : 밤 사이에 문제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내일 눈을 뗄 때 그런 대 전환이 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결안 중심 사례〉 비탈길 위의 고객서비스

미국의 해결안 컨설턴트 린 존슨이 실무에서 해결안 중심원칙을 적용한 경험담을 직접 말한다.

솔트레이크시티 위의 산에 있는 스키학교의 일을 맡았을 때가 스키학교의 강사들은 제대로 된 고객서비스 훈련을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최근 가르친 강습생 1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강습생의 90%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나머지 10%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과 깊이 있는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두 그룹 중 한쪽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그룹과 면담을 하시겠습니까?”

강사들은 “만족하지 못한 10%와 면담을 하겠다” 고 대답했다.

이에 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교습에 만족감을 표시한 90%와 면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키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어떤 점이 강습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이 강습생들을 즐겁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4.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우리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더하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아서 에딩턴/영국 천체물리학자)

- 1) 해결안 중심은 하나의 시스템적 접근법이며, 시스템 역학관계와 출현성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 2)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행동한다.
- 3) 조직의 문제를 상호관계에서 파악하자, 행동은 상호작용에 있다.
- 4) 유용한 상호작용의 촉진을 통해 신속하고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 5) 원인 및 설명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원인 및 설명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 6) 핵심적인 상호작용은 ‘문제’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 7) 필요한 것은 모두 표면에 있다. 숨어있는 특성을 상경, 특히 그 특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는 일은 쓸데없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해결안 중심 사례〉 빵 부스러기

마크(저자)의 아내인 제니는 수년 동안 마크가 빵을 자른 후에 남기는 부스러기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 그녀는 항상 부스러기를 남기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마크는 늘 부스러기를 남겼다. 사소한 문제지만, 제니는 마크의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당시 다양한 자기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빵 부스러기 문제에 적용시켰다. 사라진 빵 부스러기를 상상하기도 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문제가 생겼다. 제니는 마크에게 빵 부스러기를 남기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았고, 이에 진저리가 난 마크는 크게 화를 냈다. “휴, 못 말리겠군. 부스러기를 만들지 않고 빵을 자를 수 있다면 직접 한번 보여주시지!” 제니는 부스러기를 만들지 않고 빵을 자르는 일 대신 빵을 자른 후 부스러기를 치우는 간단한 방법을 보여 주었다. 마크에게서 “아!”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그 후 빵 부스러기 문제는 사라졌다. 상호작용의 변경으로 오래된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5. 이미 가진 것을 활용 (Make use of what's there)

“밖으로 나가는 길은 문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문을
사용하려하지 않는가?” (공자)

- 1) 없는 것이 아닌 ‘이미 가진 것’ 으로 일하라
- 2) 모든 것은 유용한 선물이다.
- 3) 이미 나타나고 있는(완전하거나 또는 부분적인) 카운터를 찾아라
당면한 문제와 관련 있는 강점, 기술, 자원의 증거를 발견하라
- 4) 결점에 주목하지 말고 가진 것을 활용하라
- 5) 만약 변화에 대한 ‘저항’ 에 부딪친다면 스스로 저항을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라

〈해결안 중심 사례〉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표적인 미국의 해결안 중심론자인 린다 메트칼프는 종종 학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능지수가 낮은 아동들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우리는 교사가 ‘약간 뒤떨어지는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10살 짜리 학생이 있다면, 글 읽는 능력이 그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는 ‘직원모집 공고를 읽을 수 있다.’, ‘교통 표지판을 읽을 수 있다’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대답들을 통해 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테면 그 학생은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것은 잘 알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소 특이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6. 가능성-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우한다면, 그는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 마땅히 어떠해야할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또는 미래에 변화할 어떤 모습으로 대우한다면
그는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괴테)

- 1) 가능성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여러분에게 이미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승인하라
- 3) 가능성은 과거나 과거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 4) ‘비판적인 설명’은 피하자
- 5)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말이나 앞에 놓여있는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현재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 6) 사람들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말을 피하자
- 7) 이미 발생한 일,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를 이끌어내자

〈해결안 중심 사례〉 당신의 재능은 무엇인가?

전화안내원, 안전관리직원 그리고 그들의 직속상급관리자로 이루어진 팀이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기는 떨어지고 서로 잘못을 탓하는 악순환에 빠져 쉽게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팀원들 각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을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컴퓨터, 가정교육, 수맥찾기, 낡은 차를 고치는 일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팀원들은 그들이 업무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역량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회사 내에서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그 결과 그들의 사기와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해결안 중심 대화와 문제점 중심 대화〉

해결안 중심	문제점 중심
<p>중요한 보고서를 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p>Q. 보고서 작성에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A.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열기 전에 먼저 보고서를 시작하지요</p> <p>Q.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서를 씁니까? A. 한 두시간 정도를 보고서 작성에 사용합니다. 우편물이나 이메일 검토를 미뤄야 하죠</p> <p>Q. 그밖에 다른 일들은 어떻게 하지요? A. 가능하면 회의 스케줄을 오후로 미뤄요. 매일 아침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죠. 아 좋은 생각인데요. 내일은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p>	<p>중요한 보고서를 쓸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p> <p>Q.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요? A.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처리하다보면 옆길로 새고 만다니까요. 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거든요.</p> <p>Q. 그렇다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글썄요. 잡무를 처리하다 보면 옆길로 새고, 그러다 보면 산만해지더군요. 저는 너무 쉽게 일을 미루고 말아요.</p> <p>Q. 그러면 이 보고서를 쓰기는 어렵겠군요? A. 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보고서는 미루어야 될 것 같아요.</p>

7. 언어-단순하게 말하기

“우리의 지적 활동에서 우리들이 언어로써 진실을 포섭하려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임을 나중해야 알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민담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진실에 대해서 마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뿐이다.”

(어나이런 베번/ 영국 정치가)

- 1) 언어는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 2) 처음에 말은 주술이었다. 말은 아직도 그 주술적 힘으로 가지고 있다.
- 3) 긍정적이고 상세하며 명시적인 용어인 5달러 짜리 용어로 상황을 표현하면 그 주술을 깰 수 있다.
- 4) 스케일은 구체적인 점수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완벽한 미래가 10점이라면 여러분은 현재 0점부터 10점 사이의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현재 점수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 것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를테면 1점) 전할 수 있겠는가?
- 5) 언어는 개인적이다. 우리는 말을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이해한다.
- 6) 언어는 세계가 아니다. ‘문제점에 대한 논의’ 에서 5천 달러 짜리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해결안 중심 사례〉 언더파

지역 소기업의 한 경영자가 곤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늘 과로상태이고 사무실은 엉망이며 업무일지의 날짜로 맞지 않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 경영자는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

건강이나 정신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경영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몰라. 그가 사용하는 말의 혼란을 지적해주어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음, 당신의 정신 건강 말이군요. 그런데 당신의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던가요?”

“음~ 토요일 골프게임을 준비할 때 좋았어요. 주말엔 늘 골프를 치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일과 상관없이 토요일 오후에 무조건 골프게임을 하기로 동의했고, 그 결과 그의 ‘정신 건강’은 물론 사무실 일상태도 나아졌다.



8.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다

“내 생각에 이론은 쓸모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론은 설명이기 때문이다. 설명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으며
해결안으로 이어져 있지도 않다”

(스티브 드쉐이저 / 해결안 중심치료 리스트서브)

- 1) 모든 상황은 각각 다르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해결안을 찾자
- 2) 작은 행동으로 빠르고 쉽게 효과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3) 잘 맞지 않는 이론을 무리학 적용하지 말자. 이론에는 예외가 있다
- 4) 여러분이 많이 ‘안다면’ 해결안을 열심히 찾지 않을 수도 있다.
초심자의 자세를 유지하자
- 5) 전문가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활용하자.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 6) 해결안에 집중하되 해결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해결안 중심 사례〉 오늘이 황금의 날?

케빈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결이 항상 쌓여있었다. 그는 항상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바쁜 것까지는 좋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저녁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린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잠자리를 챙겨주는 등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어지고 있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내의 가사 일도 돕기를 원한다.

해결안 중심 코칭 과정에서 케빈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의 카운터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이 코칭 과정에서 일찍 퇴근한 날과 그 날 일어난 일을 기록해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렇게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런 날들을 ‘황금의 날’ 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2주가 지난 후 케빈은 ‘황금의 날’ 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적당한 시

간에 퇴근한다는 막연한 생각 대신 몇 시에 퇴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과를 시작한 날, 비서와 정해진 시간에 공동작업을 했던 날(그리고 그 시간에만 함께 일한 날), 그리고 책상의 가족사진을 보며 아버지의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날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롭게 생겨난 임무 -오늘이 황금의 날이 될 것인가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일-로 인해 그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관리지리면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지질렀을 때
실수를 비난하기나 원인을 묻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실수를 지리했는지
또는 지리할 계획인지 물어보라.”

〈참고문헌〉

- 한국카리타스 피정자료집, 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2011
- 「가톨릭 사회복지 운영지표 개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2010
- 「너무 쉬워서 놓쳐버린 것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린 것들」, 앨린코헨, 조화로운삶, 2011
- 「성공한 CEO는 단순하게 해결한다」, 폴잭슨 · 마크 맥커고우, 지상사, 2004





미사

중간관리자교육 파견미사

5

중간관리자 교육 파견미사

(홍)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입당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Lyra Davidica

기쁜 마음으로

1.예 수 부 활 하 셴 도 다 알 - 렌 - 루 - 야 만 백 성 아 환 호 하 라
 2.인 류 구 이 하 셴 도 다 알 - 렌 - 루 - 야 만 십 자 가 의 회 생 으 로
 3.사 도 들 이 기 뵈 하 예 수 알 - 렌 - 루 - 야 만 주 님 의 상 따 신 리
 4.영 원 생 평 주 신 예 수 알 - 렌 - 루 - 야 만 주 님 의 상 따 신 리

f cresc. cresc.

알 - 렌 - 루 - 야 천 사 들 도 즐 거 워 알 - 렌 - 루 - 야
 - - - 주 의 이 음 주 예 수 히 - - - 주 의 이 음 주 예 수 히
 - - - 주 의 이 음 주 예 수 히 - - - 주 의 이 음 주 예 수 히

기 - 뻤 - 찬 미 노 래 하 네 알 - 렌 - 루 - 야
 천 - 국 - 찬 미 노 래 하 네 알 - 렌 - 루 - 야
 영 - 세 - 찬 미 노 래 하 네 알 - 렌 - 루 - 야
 우 - 리 - 찬 미 노 래 하 네 알 - 렌 - 루 - 야

말씀 진레

제1독서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5,5ㄴ-1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 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느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답송

시편 89(88), 2-3, 6-7, 16-17(◎ 2ㄱ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주님, 하늘은 당신 기적을 찬양하고, 거룩한 모임은 당신 진실을 찬송하나이다. 구름 위에서 누가 주님과 견줄 수 있으며,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과 같으리이까?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복음원호송

〈1코린 1, 23-24〉

◎ 알렐루야.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시네. ◎ 알렐루야.

복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 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에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지향기도

+ 형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이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4. 중간관리자 교육에 참석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Mozart

기쁜 마음으로



1. 나	의	생	명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감	사
2. 나	의	살	을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선	하
3. 나	의	음	성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주	를
4. 나	의	재	이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당	신
5. 나	의	마	음	드	리	니	주	여	받	-	아	주	시	-	어	영	혼

하	-	는	맘	으	로	찬	미	하	-	게	하	소	서
일	-	을	하	도	록	나	를	인	-	도	하	소	서
찬	-	미	하	도	록	깨	어	있	-	게	하	소	서
영	-	광	위	하	여	봉	사	하	-	게	하	소	서
토	-	록	당	신	을	사	랑	하	-	게	하	소	서



영상제송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상제상기

174 사랑의 신비

보통 빠르기로



1. 사랑의 신비 여 천사가 찬미하며 하늘과 땅이 다 함
 2. 주의 영광 채가 눈먼 사인들 비추며 주님 성령이 내 안에
 3. 생명의 음식이 며 천사의 양식이 라 주님 생령이 내 안에

깨 다 총 영 원 히 찬 미 하 도 다 복 되 어 라 주 님 의 잔 치 생 명 의
 영 영 원 히 찬 미 하 도 다 복 되 어 라 주 님 의 잔 치 생 명 의
 영 영 원 히 찬 미 하 도 다 복 되 어 라 주 님 의 잔 치 생 명 의

여
 여
 여



130 예수 부활하셨네

Monsigny



1.예 수 부 활 하 셧 네 그 전 에 사 도 께 말 씀 하 심 과 같 이 예 수 부 활 하 셧
 2.우 리 원 수 이 기 사 잔 악 한 죽 음 의 세 력 물 리 치 시 고 우 리 원 수 이 기
 3.성 부 의 노 푸 시 어 우 리 인 류 잘 못 용 서 하 여 주 시 고 성 부 의 노 푸 시



네 무 덤 위 비 추 며 오 시 네
 사 천 국 문 우 리 게 여 시 네
 어 우 리 인 류 영 생 주 시 네
 용 맹 히 승 전 하 신 예 수 여 찬 미 영 광 과 사 랑



드 리 읊 느 니 주 님 부 활 로 생 명 주 시 고 찬 미 찬 송 받 으 읊 소 서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노벨상 시상식 장소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기자들은 그가 탄 기차를 타고 특등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일등칸으로 가 보았지만 그는 거기에도 없었고, 이등칸에서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실망한 기자들은 허탈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만이 혹시나 해서 삼등칸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구석에 꾸그리고 앉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파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적어주면서 서로를 응원해 줍시다!